고려 현종~정종대 왕실의 眞影 중심 조상 숭배 의례의 확립과 그 의미

최봉준*

- 1. 머리말
- 2. 眞影의 의미와 태조 왕건 鑄像의 조성
- 3. 진전 및 경령전의 설치와 진영 중심의 왕실 조상 숭배 의례 확립
- 4. 맺음말

초록: 이 글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진영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현종~정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확립되어 나갔던 조상 숭배 의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조의 진영을 숭배의 대상으로 정하고 의례 절차를 만들며 의례를 정례화한다는 것은 그로부터의 계보를 정당화하고 현실의 권력관계를 내재화하고 구조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봉은사는 광종대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봉은사는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서 진전인 효사관을 지어 그 안에 태조 왕건의 鑄像을 안치하였다. 특히 태조의 주상은 대체로 회화 형태로 제작하는 진영과 다르다는 점에서 형태적 특징을 찾을 수 있으나, 그 형상과 상징을 통해 신성왕 권과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는 광종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국왕의 봉은사 행차가 광종대로부터 약 80여년이 지난 덕종대에 나타나고 있으며, 정종대에 가서야 연등회와 팔관회 때 국왕이 태조의 주상에 참배하는 의례 형식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봉은사 진전과 태조 주상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광종대 이후 제도적 완성기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거란의 침략이 수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즉위한 현종의 국왕 권위 회복에 대한 의지도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종은 태조 왕건의 신성왕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태조 왕건에 대한 숭배 의례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의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현종 사후 그의 아들인 덕종과 정종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는 국왕이 의례를 통해

^{*} 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신성왕권을 지닌 황제로서, 그리고 다원사회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眞影, 태조 왕건의 주상, 신성왕권, 봉은사 진전, 현종, 덕종, 정종

1. 머리말

그림은 대상을 그려 오래도록 보존하고, 이를 통해 기억을 이어나려는 목적아래만들어진 조형물이다. 그 중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그대로 옮긴 초상화는 대상물이 된 주인공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숭배의 의미도 담고있다. 초상화, 즉 填影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흔히 접할 수있는 것이 바로 조상 숭배와 관련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조상의 형상을 그림이나 사진에 담아두고 이에 대한 의례를 가족 전체가 행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연원과 존재의 의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그림과 사진 속 조상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유래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始祖에 대한 숭배는 직계 조상에 대한 숭배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근대사회에서 시조에 대한 숭배는 그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에 대한 숭배의례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것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현실적 권력관계와 신분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내적으로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天道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몸소 입증해보여야 하는 국왕은 왕실 조상, 그 중에서도 시조에 대한 숭배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시조에 대한 신성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의 시조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孝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 수용 이전 고려사회에서 조상 숭배는 주로 위패와 진영 등 2가지 대상을 두고 숭배 의례를 거행하였다.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은 太廟,1) 景靈殿,2) 魂殿,3) 사원 등에 설치되는 眞殿(4) 등으로 구분된다. 국왕의 神御를 안치하고 있으며 오묘제 형식에 만월대 궁궐 내에 위치한 경령전은, 최근에 일련의 연구를 통해의례의 연원과 운영, 사상적 배경 등에 관해 정리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이에 대해서는 중국사 분야의 연구성과도 있어서 고려와 당송 사이의 비교가 가능해졌다.5)

고려시대 왕실의 조상 숭배의 특징으로 특히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진영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령전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전 역시 이와 같은 조상 숭배 의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전은 왕실과 문벌귀족의 원당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조상 숭배와 관련한 의례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신라 통일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그 연원을 올려 잡을 수 있다. 6) 여기에는 회화 형태의 진영이 안치되지만, 간혹 조소 형태의 소상이나 주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발견된 태조

¹⁾ 崔順權, 2005「高麗前期 五廟制의 運營」、『歷史教育』66, 1998; 김철웅、「고려시대 太廟와原廟의 운영」、『震檀學報』132; 이강한, 2010「14세기 高麗 太廟의 혁신과 변천」、『震檀學報』109; 김아네스, 2019「고려 전기 태묘의 締給 親享과 그 의미」、『震檀學報』132(김아네스, 2019「왕실 조상 숭배의례와 태묘」、『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경인문화사 재수록).

²⁾ 김철웅, 2005 위의 논문: 장동익, 2009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김철웅,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32-1; 홍영의, 2012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윤기엽, 2013 「고려 景靈殿의 건립과 동향」, 『韓國思想과 文化』 69; 유희경, 2016 「高麗 顯宗代 景靈殿 설치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 위논문.

³⁾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윤기엽, 2013 「고려 혼전(魂殿)의 설치와 기능」, 『韓國思想史學』 45.

⁴⁾ 韓基汶, 1998 「寺院의 願堂으로서의 機能」,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김성환, 2018 「고려시대 太祖의 眞殿과 奉業寺」, 『先史와 古代』 57.

⁵⁾ 김상범, 2016「北宋時期의 景靈宮과 國家儀禮」, 『동양사학연구』 136.

⁶⁾ 朴南守, 2012 「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 『新羅文化』 40.

왕건의 鑄像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주상은 왕실의 원당에 해당하는 봉은사의 진전 시설인 孝思觀에 안치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7) 태묘에 위패를 모시고 있 기 때문에 위패가 왕실 의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원 적 사상지형 아래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교적 의미가 있는 위패보다는 진영이 조상과 관련한 의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사회에서, 특히 가장 많은 사례가 남아 있는 왕실에서 진영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진영이 의례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사고와 관념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진영이 중심이 되었던 의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으며,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언제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사상사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 점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진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초기 진영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고려왕실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관해 진전에 모셔진 태조 왕건의 鑄像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령전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진영이 갖는 의미와 함께 고려전기 왕실의 조상 숭배 의례의 특징을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眞影의 의미와 태조 왕건 鑄像 조성

의례의 대상은 의례의 절차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 대상물의 형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의례 대상

⁷⁾ 노명호, 2012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지식산업사, 54~56면.

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의례 주체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 조상 숭배 의례의 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眞影과 位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패는 죽은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그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판으로써, 유교식 제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宋代부터 위패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위패는 법명을 기록하여 가정의 불단이나 사원에 안치하였다.8) 따라서 위패를 유교식 제례의 전유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고려시대에 위패는 太廟에 안치했던 한편, 原廟에 해당하는 景靈殿에는 진영을 안치하였다. 그 밖에도 왕실과 문벌귀족층에서 진영을 안치한 眞殿을 많이 건립하였으며, 장례기간에 설치되는 魂殿에는 위패와 진영이 함께 안치되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려시대에는 위패에 비해 진영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을 국가지도이념으로 확립한 조선왕조에 들어 진영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점차 위패가 조상 숭배와 관계되는 의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건국 직후 조상 숭배 시설은 위패를 모신 廣孝殿과 진영을 모신 文昭殿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443년(세종 15)에 이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문소전을 건립하게 되면서⁹⁾ 태종과 원경왕후의 위패를 모두 여기로 옮겨놓는 등 원묘에서 진영을 없애고 모두 위패로 대체하였다.¹⁰⁾ 조선왕조는 태조의 진전을 영흥, 경주, 평양, 개성, 전주 등에 세웠으며, 수는 적지만 조선 국왕의 진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외면적으로는 고려와 같이 위패와 진영 모두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규모는 고려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주요한 제사의례의 대상이 되었던 진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眞影은 일반적으로 제사의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2차원적 인 초상화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옮긴 그림을 표현하는 용

⁸⁾ 藤井正雄 編, 2001, 『佛教儀禮辭典』 東京堂出版, 15 년.

^{9) 『}世宗實錄』 권58, 世宗 14년(1432) 10월 甲寅.

^{10) 『}世宗實錄』권55, 世宗 14년(1432) 정월 丙子.

어는 일찍부터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용어를 대표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려사』등 연대기 사료와 문집류에 등장하는 眞, 眞影, 影, 神御, 影幀, 祖眞, 聖容, 御容, 御真, 眞容11) 등은 상류 귀족층의 초상화를 표현한다. 단순히 이 같은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를 꼽아보면, '眞', '影', '容'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이 세 글자는 모두 특정 사물의 모습 또는 실물 등을 의미한다. 특히 국왕에 대해서는 단순히 '眞'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조의 초상은 '太祖眞'으로 표현하였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12) 간혹 '眞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빈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13)

엄명을 받들고 따라 陳田寺에 도착하여 기꺼이 몸소 (도의선사의) 遺墟를 답사하였는데 그 靈塔에 예를 다하고서 선사의 眞影에 감복하여 영원한 제자의 의식을 폈다. (이는) 가히 공자가 □□을 본받아 仁과 德을 공경한 것이며, 맹자가 顏子를 동경하여의를 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귀의하기를 바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4)

'影'의 경우, 초상화나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초상화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眞'에 비해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위의 인용문과 같이 眞과 影을 합하여 초상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⁵⁾ 조사의 진영을

^{11) 『}大覺國師文集』 권8. 「謝謝本國文王眞容表」.

^{12) &#}x27;太祖真'이라는 표현은 『高麗史』世家6, 靖宗 4년(1038) 2월 癸未 이후부터 나온다.

^{13) &#}x27;眞容'은 『高麗史』에 世家26의 元宗 6년(1265) 4월 癸卯에 경령전에 안치되어 있는 인종과 명종의 眞容을 재배열하였다는 기사에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睟容'도 『고려사』에 보인다(『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복위년(1308) 10월 丁酉). 이밖에 鄭樞의 『圓齋集』 권中, 「羅興儒判書奉使日本 旣廻 以行錄示予 用錄中所載 綴句贈之」와 최해의 『東人之文四六』 권5, 「順德王后哀册」에도 보인다. 그러나, '容'이 얼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모습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4)「}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역주 나말려초금석문』(상), 혜안, 61円), "所以奉遵嚴命 得到陳田 所喜親踏遺墟 禮其靈塔 追感眞師之影 永申弟子之儀 可謂 尼父則師彼□□ 欽仁嚮德 孟軻則希於顏子 重義歸心者乎".

^{15)「}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위의 책, 314면), "光宗大王聞之震悼嗟覺花之先落 慨慧月之早沈 吊以書 賵以穀 所以資淨供 瞻玄福 敬造眞影壹幢 仍令國工 封

모셔둔 건물을 影堂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아,16) '眞'과 '影'은 같은 의미의 글자로서 통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는 왕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왕실 직계 조상과 관련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진과 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초상화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얼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真容이 초상화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의 全身을 그리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17) 진용과 같은 좁은 의미의 용어보다는 진영과 같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영은 위와 같이 그림의 형태로 남아 있는 초상화가 일반적이지만, 塑像이나 鑄像과 같이 3차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다. 이후에 서술할 태조 왕건의 진영의 경우 봉은사의 진전에 안치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사』에서 는 이를 '太祖眞'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발견된 태조 왕건의 鑄像이 바로 이 봉은사 진전에 안치된 太祖眞이다.¹⁸⁾ 헌종대 봉은사 진전의 御榻 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으로 보아,¹⁹⁾ 봉은사 진전에는 어탑에 조각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종대에는 최충헌이 봉은사 진전을 참배하고 衣襯을 바쳤다는 기 록이 보인다.²⁰⁾ 이를 통해 봉은사 진전에 모셔진 조각상은 裸身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太祖眞이라는 표현을 상기할 때, 태조의 진영이라고 하면 대체로 鑄像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영은 회화 형태의 초상화와 함께 조각의 형태인 鑄像을 비롯하여 塑像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層家 門人等 號奉色身 竪塔于迦耶山西崗 遵像法矣".

^{16) 「}太子寺郎空大師碑」(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위의 책, 208면), "乾符二年 至成都俯巡謁 到靜衆精舍 禮無相大師<u>影堂</u> 大師新羅人也 因謁寫眞聞遺美 爲唐帝導師 玄宗之師同鄉 唯恨 異其時 後代所求追其□".

¹⁷⁾ 당시의 畫法에 의하면 산 사람은 반신상을, 죽은 사람은 전신상을 그렸다고 한다(『高麗史』 권100, 列傳13, 杜景升, "進平章事 封三韓後壁上功臣 勑畫工李光弼圖形 光弼曰 畫法 生時 畫半像耳 景升怒 使具體").

¹⁸⁾ 노명호, 2012 위의 책, 지식산업사, 54~56면.

^{19) 『}高麗史』 권54, 志8, 五行2, 木, 金沴木, 獻宗 원년(1095) 6월 癸巳.

^{20) 『}高麗史』 권21, 世家21, 神宗 6년(1203) 9월 甲午.

진영을 안치하고 그에 대하여 특정한 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경의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13년에 이찬 김헌정이 지은 斷俗寺 神行禪師 비문에는 돌아가신 선사를 위해 유명한 장인을 불러 선사의 부도를 건립하고神影을 그리게 하였으며, 이는 聖人께 간절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진영을 그린다는 것은 개인의 행적을 기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와 달리 문벌귀족이나 왕실에서는 진전을 願堂에 건립하고 여기에 진영을 안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영은 효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널 리 알려진 바와 같이 광종대에 창건한 봉은사는 아버지 태조의 원당으로 삼기 위 한 것이었다.²²⁾

그러나 앞서 행적을 기리는 것을 넘어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선사의 진영을 왕실에 적용하면, 이는 정치적 의미에서 왕권에 대한 신성화 작업 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하대에는 민애왕의 진전이 동화사에 건립되었 던 것을 비롯하여²³⁾ 여러 국왕의 진전사원이 건립되었다. 진전사원은 선덕여왕의 진영을 모신 靈廟寺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²⁴⁾ 이 때문에 진전사원은 대체로 왕실의 직계 조상의 제사를 위한 시설로서, 고려시대에 들어 왕실 원당이라는 형 태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재위 23년인 建初 4년(79) 기묘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소천구(疏川丘) 안에 장사를 지냈는데, 후에 神靈이 명령하기를, "나의 뼈를 신중하게 묻어라!" 라고 하였다. 그 해골의 둘레가 3척 2촌이며 키는 9척 7촌이었다. 치아는 모두 붙어서 하나의 뼈와 같았다. 이른바 천하에서 대적할 것이 없는 力士의 뼈였다. (이를) 부수어서 塑像을 만들고 궐내에 안치하니 신령이 (나타나) 또 말하기를, "내 뼈는 동악에 두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을 내려 그곳에 안치하였다(일설에 (탈해왕이) 세상을 떠난

^{21) 「}神行禪師碑」(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22면).

^{22)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2년(951).

^{23) 「}敏哀大王石塔舍利壺記」(허흥식, 1986 『韓國金石全文』(2), 아세아문화사).

²⁴⁾ 박남수, 2012 「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41, 79~81면.

²⁵⁾ 韓基汶, 1998 「寺院의 願堂으로서의 機能」, 앞의 책.

후인 제 27대 문무왕대인 調露 2년(680) 庚辰年 3월 15일 辛酉日 밤에 태종무열왕의 꿈에 외모가 심히 위엄 있고 용맹해 보이는 어떤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탈해다. 소천구에서 내 뼈를 파내어 塑像을 만들고 토함산에 안치하라"라고 하였다. 왕이그 말을 따랐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라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가 곧) 東岳神이다) 26)

국왕의 유해를 재료로 만들어진 상징물은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위의 인용 문은 탈해왕의 소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경로로 궐내에 또는 토함산에 안치되어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탈해왕의 뼈로 소상을 만들어 궐내에 안치한 것은 그 자체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주에서도 위엄 있고 용맹하다고 하여 궐내에 안치되어 있는 고귀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강인한 이 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세주에서는 탈해를 국가 수준의 제사를 지내는 東 岳神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탈해왕의 소상이 왕의 뼈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왕의 분신이면서도 신라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 비록 성씨는 달라도 당시의 신라 왕실이 탈해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덕왕 22년(763) 癸卯에 信忠은 두 친구와 서로 약속을 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남악에 들어가서, 다시 (벼슬에)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신충은) 왕을 위해 斷俗寺를 짓고 들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은거하며 복을 빌 것을 염원하였으며,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왕의 진영을 금당 뒷벽에 걸어두었는데 (그 그림이) 이것이다.²⁷⁾

국왕의 진영을 왕권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이후에도 이어졌

^{26) 『}三國遺事』 刭1, 紀異 刈1, 脫解王, "在位二十三年建初四年己夘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慎埋葬我骨 其髑髏周三尺二寸 身骨長九尺七寸 齒凝如一骨節皆連瑣 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 碎爲塑像安闕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一云崩後 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庚 辰 三月十五日辛酉 夜見夢於太宗 有老人兒甚威猛曰 我是脫解也 拔我骨於疏川丘塑像安於 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国祀不絶 即東岳神也云)."

^{27) 『}三國遺事』 권5, 避隱, 信忠掛冠, "景德王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以奉福大王 王許之 留真在金堂後壁是也".

다. 경덕왕대 신충 등은 국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진영을 금당 뒷벽에 걸어두고 예배를 드렸다. 이때 금당 뒤에 걸어둔 진영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국왕의 진영이 예배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적 의미에서 국왕도 신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신라말 궁예가 부석사건물 내부에 걸린 왕의 진영을 칼로 내리쳐 파괴한 것은 위와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이는 궁예가 신라 국왕의 신성한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신라 정벌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며,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28)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태조 왕건의 鑄像이다. 광종은 951년(광종 2) 3월 개경 남쪽에 奉恩寺를 창건하고 태조의 원당으로 삼았으며, 어머니 유씨의 원당은 개경 동쪽의 佛日寺로 지정하였다.²⁹⁾ 고려 왕실의 원당은 진영을 안치하는 시설, 즉 진전이 있는 원당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봉은사는 때때로 국왕이 행차하기도 하며, 진전에 해당하는 孝思觀에서 太祖의 眞影에 참배하였다. 이때 국왕이 참배한 진영은 대개 태조 왕건의 鑄像으로 보고 있다.³⁰⁾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태조 왕건 주상의 형상에 나타난 상징들은 국왕의 황제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에 쓰고 있는 日月 장식이 달린 通天冠은 중국의 황제들이 사용하던 것과 매우 닮아있다. 唐代의 규정에 따르면, 통천관은 천자의 복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4개의 梁에는 매미 장식 12개를붙이는데, 여기에는 珠翠와 博山을 두며 흑개책을 쓰고, 組纓에는 취옥을 꿰고 옥과 무소의 뿔로된 비녀[簪導]를 장식하였다고 되어 있다.31) 태조 왕건 주상이 쓰고 있는 통천관에는 24량과 6개의 취옥, 오각형의 金博山, 비녀 등이 있는 것으로보아, 형태상 당대의 규정을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양식의 통천관은 중국 북송대와 남송대의 시왕도에도 나타나며, 고려시대의 회화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우나,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28) 『}三國史記』 권50, 列傳10, 弓裔.

^{29)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2년(951) 辛亥.

³⁰⁾ 노명호, 2012 앞의 책.

^{31) 『}新唐書』 권24, 志14, 車服, 天子之服.

10~11세기를 기점으로 많은 예가 보인다.32)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천관의 형태상 특징에 해당하는 24량, 금박산, 옥 또는 무소뿔로 된 簪導 등이 태조 왕건 주상에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에서 唐의 규정을 직접 참고하였다고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통천관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면, 통천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즉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조 왕건 주상에는 전륜성왕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다. 태조의 주상에 나타나는 눈썹이나 귀의 형상은 불상과 유사한 형태이며, 다른 여러 곳에서도 불상의 형태를 차용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한다. 특히 평평한 발바닥(足下安平立相), 감추어진 음경(陰藏相) 등 三十二大人相의 특징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33) 통천관에 장식되어 있는 日月 장식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불상의 寶冠에 나타나며, 턱 아래의 3줄의 주름 역시 불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34) 이와 관련하여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형상을 참고할 수 있다.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알려진 바와 같이 18.12m의 거대한 크기에 얼굴이 지나치게 강조된 인상을 받는다. 특히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은 세속적 제왕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다.35) 특히 광종은 공신세력을 척결하고 화엄종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통합을 통해 왕권 강화정책을밀고 나갔다. 광종이 봉은사를 세우고 아버지의 원당으로 삼은 것은, 적어도 봉은사에서 왕실의 조상 숭배를 위한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신성왕권을 계승하였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불교는 국왕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위의 전륜성왕은 불교의 수장으로서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신라말 이후 국왕은 승려들의 稱臣을 받기도 하면서 불교 통제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특히 태조는 자신이직접 지은 「開泰寺華嚴法會疏」에서 자신을 菩薩戒弟子, 즉 '佛弟子'라고 표현하였

³²⁾ 정은우, 2013 「고려 청동왕건상의 조각적 특징과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37, 206~217면.

³³⁾ 노명호, 2012 앞의 책, 129~141면.

³⁴⁾ 정은우, 2013 앞의 논문, 219~220면.

³⁵⁾ 최선주, 2000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14, 17~20면.

다.36) 즉, 부처에 귀의하며 나라를 세우고 三韓一統한 것에 대해 印可를 내려주기를 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왕이 불교의 교의를 지키며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태조는 승려의 칭신을 받았으며37) 훈요십조 제1조에서불교가 간신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유훈을 남겼다.38) 태조대 이후 국왕은불교의 수장으로서 불교의 비대화를 막고 통제하였다. 이어서 광종대에는 과거제를 도입할 때 승과를 설치하여, 관료제로 儒臣을 선발 통제하는 한편 승계와 교단조직은 승과를 통해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왕이 다원적 사상지형의조정자 역할을 하는 유불의 실질적 수장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9) 더욱이 이후 태조 왕건의 원당에서 역시 태조의 주상을 대상으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의례는 광종의 의지대로 태조의 신성 왕권의 계승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불교의실질적인 수장이자 전륜성왕으로서의 시각적 이미지를 널리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전 및 경령전의 설치와 진영 중심의 왕실 조상 숭배 의례 확립

고려의 왕실 의례에서 진영이나 소상, 주상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위패를 안치한 태묘를 제외하고 봉은사의 태조 진전이었던 孝思觀과 景靈殿, 왕실 의 진전사원 등에서는 모두 진영을 안치하였다. 그리고 魂殿에서는 진영과 위패

^{36) 『}東人之文四六』 권8.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菩薩戒弟子 大義軍使特進檢校太保 玄兎州都督高麗國王王諱 謹於新創天護山開泰寺 敬置長講華嚴經法會 一中功德 右弟子 稽 首歸依 盡虛空徧法界 十方三世一切諸佛諸尊菩薩羅漢聖衆梵釋四王日月星辰天龍八部 及岳 鎮海瀆名山大川天地一切靈祇等 普請照知僉垂印可".

³⁷⁾ 남동신, 2005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38)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년(943) 4월.

³⁹⁾ 최봉준, 2016 「고려 태조~현종대 다원적 사상지형과 왕권 중심의 사상정책」, 『한국중세 사연구』 45(채웅석 편, 2019 『고려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통합 조절』, 혜안).

모두 안치하였다. 고려의 경우 태조의 주상을 통해 황제로서의 국왕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며, 이를 의례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과 그 계보가 갖는 정당성을 널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영이 갖는 시각적효과를 통해 왕권의 신성성을 구조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진영이나 위패 등 숭배의 대상을 중심으로 조상 숭배 의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옮겨보면, 眞影은 '혼전-경령전-진전사원'으로, 위패는 '혼전-태묘' 등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이원적 구조 아래서 진영과 위패는 언뜻 보기에 동등한 수준에서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와 함께 국왕의 4대조 조상의 神御를 모신 경령전 의례와 진전사원 의례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를 조선시대의 위패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조상 숭배 의례와 비교하면 진영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실의 조상 숭배의례를 진영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경령전이 설치되던 현종말~덕종 즉위 초의 태조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조 왕건은 불교적으로 전륜성왕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이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전체의 신성화 작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태조는 918년 궁예를 쫓아내고왕위에 올랐으며, 이는 有德者로서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폭군을 축출한 放伐의 사례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으로 천명을 바꾼 革命의 이미지로서, 왕건의 즉위 역시 천명에 의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태조 왕건도 즉위 조서에서 궁예가 함부로 연호를 칭하고 황제라일컬으며 처자까지 살해하기에 이르러 하늘과 땅, 귀신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법도를 바로 세우고 임금과 신하, 그리고 만백성이 함께 즐기는 태평성대를 열겠다고 천명하였다.41) 이와 같은 메시지는 '天授'라고 정한 연호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천명을 받아 태평성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천명은 비단 유교적 의미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

^{40) 『}高麗史』 권92, 列傳5, 洪儒.

^{41) 『}高麗史』 권1, 太祖 원년(918), 6월 丁巳.

알려져 있다시피『고려사』世系에는 태조 왕건의 건국, 삼한일통과 관련 있는 갖가지 징후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왕창근이 궁예에게 바친 거울에 나타난 '먼저닭을 잡고 오리를 쳐서 三甲을 하나로 한다'는 것이나⁴²) 도선이 도참으로 용건의 아들 왕건이 삼한을 통합할 것이라 예언한 것,⁴³) 그리고 즉위 전 태조 왕건의 꿈에 나타난 9층탑 등은 모두가 왕건의 궁예 축출, 나아가 후삼국통일을 합리화하기위한 것이었다.⁴⁴) 또한 왕건의 꿈에 나왔다고 하는 9층탑은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삼한일통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통일 이전 태조는 최응에게 신라가 9층탑을 만들어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듯이 개경에 7층탑을 세우고 서경에 9층탑을 세운다면, 사악한 무리들을 없애고 삼한일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발원하는 글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⁴⁵) 이는 도참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9층탑이 삼한일통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태조 왕건의 주상과 관련한 전륜성왕의 이미지이다. 이는 위의 태조의 즉위 조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천명을 받아 태평성대를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동일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천명을 받음과 동시에 삼한일통을 이룩한 불제자이자⁴⁶⁾ 전륜성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태조 왕건에 의해 세워진 국가이며, 안팎으로 천명과 諸佛 및 천지신명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이에 따라 고려는 국가적으로 태조 왕건의 선대에 대한 추존을 통해 왕실에 대한 신성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태조의 3대조를 각각 '始祖元德大王', '懿祖景康大王', '世祖威武大王'이라 追諡하였는데⁴⁸⁾ 여기에는 묘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42) 『}高麗史』 권1, 太祖 총서, 禎明 4년(918) 3월.

^{43) 『}高麗史』, 高麗世系,

⁴⁴⁾ 위와 같음.

^{45) 『}高麗史』 권92, 列傳5, 崔凝.

^{46)『}東人之文四六』 권1,「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⁴⁷⁾ 한정수, 2018 「고려 문종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64, 74면.

^{48)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2년(919) 3월 辛巳.

그리고 대왕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龍孫意識으로 왕실의 혈통을 신성화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된다. 우선 『고려사』世系에는 작제건이 서해 龍王의 딸과 혼인하여 龍建을 낳았으며,49) 나주 출신의 장화왕후가 태조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용이 뱃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훗날 혜종이 되는 王武를 '眞龍子'라고 기록했다는 점 등은 모두 태조 왕건 당대는 물론 가까운 선대와 2세가 모두 용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50) 즉, 고려 왕실은 용왕의 후손으로서 신성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연장선에서 광종이 '光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皇都, 서경을 西都라고 칭한 점과51) 함께 목종이 서경을 다시 鎬京이라고 고친 것은52) 결국 용손에 걸맞은 황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내외에 보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혜종을 비롯한 후대의 국왕은 전륜성왕이자 용손의 후손으로서의 해동천자라고 할수 있다.53)

광종은 이와 같은 황제의 위상에 걸맞은 왕실의례를 확립해나가고자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한 奉恩寺 창건이다. 봉은사는 951년(광종2) 개경의 남쪽에 설치한 것으로, 동쪽 교외에 위치한 어머니 유씨의 원당인 佛日寺와 함께 설치되었다.54) 여기서 유의할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건 기록과 실제 참배 기록 사이의 시간적 격차이다.

- (A) 왕이 부왕의 諱辰道場을 지내기 위해 玄化寺에 갔다.55)
- (B) 왕이 태조의 諱辰道場을 지내기 위해 奉恩寺에 갔다.56)

^{49) 『}高麗史』 高麗世系.

^{50) 『}高麗史』 권88, 열전1, 太祖后妃 莊和王后 吳氏.

^{51)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11년(960) 3월 甲寅.

^{52)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원년(998) 7월 癸未.

⁵³⁾ 이정란, 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韓國史學報』 55: 한정수, 2018 앞의 논문.

^{54)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2년(951).

^{55) 『}高麗史』 过5, 世家5, 德宗 원년(1032) 5월 丁酉, "王以皇考諱辰道場 如玄化寺".

실제로 봉은사에 국왕이 행차하여 참배했다는 기록이 나타난 것은 창건을 시작한지 81년이 지난 1032년(덕종1) 6월이다. 위의 인용문 (B)와 같이, 이때 덕종이 태조의 휘신도량을 지내려 봉은사에 행차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광종대봉은사 창건 이후 처음 보이는 봉은사 행차 기록이다. 이러한 시간적 격차에 대해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광종~현종대 복잡하게 전개된 대내외 정세와 광종대 개경과 그 일원에 많은 사원을 한꺼번에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57) 즉 광종대 이후 여러 변수로 인하여 왕실 조상 숭배 의례는 사실상 국초부터 개별적으로조성된 원당과 진전, 그리고 태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사료 (B)에서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휘신도량을 지냈다는 것은 원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료(A)와 같이 덕종은 부왕인 현종의 위신도량을 안종과 孝肅王后의 원당인 현화사에서 지냈다. 특히 휘신도량은 주인공의 기일에 즈음하여 제향을 올리는 제례로서국가적 규모의 행사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요와 금의 사신이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소요되는 재물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많은 물품이 올라왔다.58) 따라서매우 성대한 규모로 치러지는 행사였던 만큼 이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봉은사는 광종대에 건설이 시작되어 어느 시기엔가 완성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진전과 같이 제례를 위한 시설은 덕종 원년인 1032년과 가까운 과거에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 주상 역시 국왕이 행차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한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존하는 유일한 '太祖真'이 현재 남아 있는 태조 주상이라고 한다면, 1032년과 가까운 과거에 태조 왕건의 주상을 완성하였고, 1032년의 태조에 대한 휘신도량은 주상을 사용한 첫 번째 의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56) 『}高麗史』 권5, 世家5, 德宗 원년(1032) 6월 辛丑, "王以太祖諱辰道場 如奉恩寺".

⁵⁷⁾ 韓基汶, 2008 앞의 논문.

⁵⁸⁾ 한정수, 2008「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의 의미」,『史學硏究』91, 114~115면.

왕명을 귀하게 받들어 오로지 時宜에 따라 판단하였으니, 三寶와 宮室을 세운 것이 3군데였다. 그 이름을 밝히면, 玄化寺, 奉恩寺, 太廟였다. 게다가 또 奏牘을 올리니 곧임금의 兪音을 받들어 創立하고 修營한 절과 궁□(은)는 15군데였다. 普濟寺의 金堂과羅漢殿, 醫王寺, □家院, 서경의 사천왕사, 서경 長樂宮의 태조 진전, 延州 경내 鎭北의靈化寺, 宣州 神衆寺, 珍島縣의 占察院, 市津縣 경내 布川의 미륵원, 狼川郡의 開通寺와 啓星寺, 皆次近山의 正陽寺, 水州의 資福寺, 松林縣 경내의 普賢觀 등이었다.59)

위에서 언급한 '1032년과 가까운 과거'는 현종대로 생각된다. 위의 인용문은 최사위(961~1041) 묘지명의 일부이다. 인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봉은사 건설과 서경 태조 진전 건설에 공이 있다는 점이다. 최사위는 1052년(문종6)에 현종의 배향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역시 현종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60) 위의 인용문에서 삼보와 궁실로 세운 3곳 가운데 봉은사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 최사위에 의해 창건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에 의해 安宗의 원당인 현화사와서경 장락궁의 태조 진전 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시설들이 완성되었으며 현종 즉위초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태묘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인용문에서 말하는 '봉은사를 세웠다'는 기록은 그가 봉은사를 중건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광종대 봉은사가 세워진 이래 국왕의 행차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태조 진영에 대한 제사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사의 대상인 태조 주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전 건물인 孝思觀은 거란과의 전쟁이 있었던 현종대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사관은 최사위에의해 봉은사가 중건되면서 함께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종대 초에 태조 진전 건물이 완공되었다. 다만 태조

^{59)「}崔士威墓誌銘」、"貴承王命 獨斷時宜 造立三寶幷宮室者 三所也 審其名焉 玄化寺奉恩寺大廟者也 況又自陳奏牘 便奉曰兪 創立修營寺舍宮□者 一十五所也。普濟寺金堂及羅漢殿 醫王寺□家院 西京四天王寺 其京長樂宮大祖眞殿 延州境內鎭北靈化寺 宣州神衆寺 珍島縣占察院 市津縣境內布川彌勒院 狼川郡開通寺啓星寺 皆次斤山正陽寺 水州資福寺 松林縣境內普賢館等也"(金龍善, 1997『高麗墓誌銘集成』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39면).

^{60) 『}高麗史』 권94. 列傳7. 崔士威.

진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낙성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언제 완공되었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1032년에 치른 휘신도량을 봉은사에서 거행하였다는 것은 태조 왕건에 대해 국가적 의례를 거행한 거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진전 건물 완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연등회가 열리자 국왕이 봉은사에 가서 태조의 진영을 참배하였다. 연등회 날 저녁에는 (왕이) 반드시 태조의 眞殿에 行香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61)

端宗은 1032년 봉은사 진전에서 열린 휘신도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매년 상원에 열리는 연등회 때 반드시 국왕이 태조의 진전에 行香하도록 하고 이를 상례로 삼게 하였다. 이때 확립된 의례는 소회의식이 끝난 이후 국왕이 노부와 의장이 미리 정렬한 가운데 국왕이 추밀 이하 백관을 이끌고 봉은사로 떠나기 위한 의장과 봉은사 진전에서 再拜하고 酌獻하는 의식으로 나뉜다.62) 이 의례의 핵심은 국왕이 태조의 鑄像에 재배하고 작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백관은 재배하고 국왕은 작헌 후 추밀이 올린 술을 음복한 후 재배한다. 즉, 작헌과 음복은 국왕에게 만 허락된 것이며, 백관은 이를 지켜보는데 그친다. 이는 국왕의 직계조상에 대한의례이기 때문에 당연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왕의 재배와 작헌, 음복을 지켜보는 백관은 국왕이 신성왕권의 후예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절차라고 할수 있다.

참고로 경령전에 안치한 태조의 진영에 대한 의례와 비교해보면, 여기서도 국왕은 '再拜-上香-酌獻'으로 이루어진 의례를 직접 행하게 된다. 즉, 낭사가 축문을 읽고 從官에게 재배하게 하면서도 상향과 작헌만큼은 국왕이 추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행하게 되어 있다.63) 송의 경령궁과 같이 황제가 좌우경령궁의 수많은 전각을

^{61) 『}高麗史』 권5, 世家5, 靖宗 4년(1038) 2월 癸未.

^{62) 『}高麗史』 269, 志23, 禮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중 '謁祖眞儀'.

^{63) 『}高麗史』 권61, 志15, 禮3 景靈殿.

차례로 옮겨가며 바쁘게 神御에 작헌과 재배하는 것을 신하들이 지켜보기만 하는 의례와 달리 고려에서는 신하가 재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신하가 완전히 의례에 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이 직접 의례를 행함 으로써 신성왕권의 후예라는 것을 만천하에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왕이 연등회가 열리는 상원일 직전에 태조 진전에 행차하여 참배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교의 월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새해 첫날에 궐내에 위치한 경령전에 참배하고 상원 연등회 전날에 태조 주상에 참배하는 것은 결국 국왕이 농사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고,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태조에게 고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은 유교의 월령에 따라, 그리고 불교의 연등행사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제와 승과제를 통해 유신과 고급승려를 선발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유교와 불교의 제도적 수장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후대의 국왕은 바로 태조의 신성왕권을 계승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성대하게 거행되는 의례를 통해 재확립된 국왕의 위상을 구조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덕종~정종대 태조 왕건에 대한 의례 시설과 의례는 당시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종은 安宗과 孝肅王后 황보씨의 아들로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김치양과 목종을 죽인 강조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종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를 넘겨야 하였으며, 어머니 효숙왕후와 아버지 안종 역시 불행하게 생을 마쳤다. 64) 또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략하자 개경이 거란군에 함락되고 궁궐을 비롯한 개경 시내가 파괴되었으며, 태묘 역시 불타고 말았다. 65) 이 일로 현종과 왕비는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으며, 66) 피난 과정에서도 초라한 행색으로 향리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67)

^{64)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總序.

^{65)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2년(1011) 1월 乙亥.

^{66)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원년(1010) 12월 壬申.

^{67) 『}高麗史』 권94, 列傳7, 智蔡文.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즉위한 현종과 함께 거란의 침입, 개경의 파괴는 무너진 왕권을 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조 왕건의 신성왕권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신하들이나 민에게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쟁 직후부터 태묘를 재건함과 동시에⁶⁸⁾ 봉은사 역시 재건하고 진전 시설까지 완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이어 덕종은 태조 진전을 처음으로 참배하였으며, 정종은 연등회와 팔관회 예식을 마련함으로써 고려국왕은 태조의 신성왕권을 계승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의례의 절차와 목적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의례의 대상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상 숭배 의례는 의례를 거행하는 주체의 필요에 따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앞으로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11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고려 顯宗~靖宗代에 확립된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 숭배 의례는 태조로부터 이어지는 신성 왕권의 계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다원사회의 구심점에 해당하는 국왕의 권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태조 왕건은 신성 왕권을 상징하는 국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현실적 권력을 구조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상 숭배 의례의 매개물은 크게는 위패와 진영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례 대상의 혼백이 깃든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유교적 의미에서 효에 해당하며, 의례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진영을 모신 것 역시 효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그이미지의 상징성으로 볼 때 이는 대체로 불교적 의미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진영은 특정 인물의 활동을 기념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

^{68) 『}高麗史』 권5, 世家5, 顯宗 18년(1027) 2월 戊子 및 4월 壬午.

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으며, 의례 절차를 만들고 정례화함으로써 의례 대상과 의례의 주체의 관계, 그리고 의례 주체 안에서의 명분관계를 구조화한다. 또한 왕실의 경우 현실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태조를 비롯한 선왕은 신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왕실의 입장에서 진영을 의례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체로 왕권에 대한 신성화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탈해왕의 소상을 궐내에 안치한 태종무열왕의 행동은 위엄 있고 용맹한 탈해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신성한 존재에 왕실의 안위를 의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국왕의 진영이 불교적 의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국왕의 진영은 단순히 이미지를 빌려오는 것을 넘어서 전륜성왕의 이미지까지 확대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례로 태조 왕건의 주상은 『신당서』에 묘사된 통천관의 모습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 중국의 회화와 고려시대 불화 등에 나타난 모습과도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그리고 눈썹과 귀의 모양, 평평한 발바닥, 턱 아래의 주름 등은 관촉사석조보살입상과 비교해볼 때 제왕, 즉 황제의 이미지와 앞서 언급한 전륜성왕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종이 즉위한 초기 거란과의 전쟁으로 파괴된 개경과 태묘, 현종과 아버지 안종과 어머니 효숙왕후의 불행한 개인사는 국왕으로서 현종의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종은 개경을 복구함과 동시에 무너진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 무언가가 필요하였다. 이에 현종은 궁궐과 태묘를 복구하였으며, 태조 왕건의 이미지를 자신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이는 태조와 손자인 현종에게 주어진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현종은 천명을 받아 태평성대를 열었던 제왕이자 전륜성왕, 그리고 황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태조왕건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계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선 광종대 세워진 태조의 원당인 봉은사에 진전을 건립하고 그 이미지를 담아 주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경령전을 세워 아버지 안종을 국가의례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즉위를 정당화하고 신성 왕권의 계승자이자 황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현종이 이러한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자 뒤이어 즉위한 덕종은 즉위년에

경령전에 자신의 즉위를 고하고, 이듬해 태조의 기신도량을 봉은사에서 거행하였다. 이는 태조의 기신제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현종대로부터 이어진 태조 왕건신성화 작업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덕종의 동생인 靖宗은 팔관회를 정례화함은 물론 연등회에 국왕이 태조 진전을 참배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이는 태조의 신성왕권을 계승한 국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목적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논문투고일(2020. 5. 16),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김상범, 2016「北宋時期의 景靈宮과 國家儀禮」、『동양사학연구』 136. 김인호, 2010「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김철배, 2009『조선초기 태조 진전의 건립과 경기전』,『全北史學』34. 김철웅, 2005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 2009「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32-1. 남동신, 2005「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노명호, 2012『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박남수, 2012「眞殿寺院의 기원과 新羅 成典寺院의 성격」, 『한국사상사학』41. , 2012「新羅 眞殿寺院의 조영과 그 思想的 背景」,『新羅文化』40. 안지원, 2011『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우 훙, 2001 『순간과 영원』, 아카넷. 유희경, 2016「高麗 顯宗代 景靈殿 설치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윤기엽, 2013 「고려 경령전(景靈殿)의 건립과 동향」, 『韓國思想과 文化』69. , 2013『고려 혼전(魂殿)의 설치와 기능』,『韓國思想史學』45. 이정란, 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韓國史學報』 55. 장동익, 2009「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敎育論集』 43. 정은우, 2013「고려 청동왕건상의 조각적 특징과 의미」,『한국중세사연구』37. 최봉준, 2016「고려 태조~현종대 다원적 사상지형과 왕권 중심의 사상정책」,『한국중 세사연구』45(채웅석 편, 2019『고려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통합 조절』혜안). 최선주, 2000『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관한 연구』,『미술사연구』14. 캐서린 벨, 2007『의례의 이해』, 한신대 출판부. 韓基汶, 1998『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 2008「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韓國史學報』33. 한정수, 2005 「고려시대 君主觀의 二元的 이해와 정치적 상징」, 『國史館論叢』 106. , 2008「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그 의미」, 『史學硏究』91. , 2012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史學研究』107. , 2018『고려 문종대'해동천하'인식의형성과 그 의미』,『한국사상과 문화』64. 한형주, 2007 「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24. 홍영의, 2012『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한국학논총』37.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Ancestor Worship Ritual and the Meaning Focused on the Portraits of the Royal Family from King Hyeonjong to King Jeongjong of the Goryeo Dynasty

Choi Bong-Ju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portraits in the royal family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meaning of ancestor worship ritual that had been esta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Hyeonjong to Jeongjong.

To designate the progenitor's portrait as an object of worship, to make ritual procedures and to regularize rituals can be interpreted as justifying the genealogy from it, internalizing and structuring the power relation of reality.

It is said that Bongeunsa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jong. Hyosagwan, Jinjeon, as an original hall of King Taejo was built in Bongeunsa Temple and the statue of King Taejo was enshrined in it. In particular, its form related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terms of that the statue of King Taejo is different from the portrait usually created in the form of paintings, but it contains images of the divine right of kings and Chakravartin through its shape and symbol.

However, Bongeunsa Temple was not completed in the reign of King Gwangjong. This is because that there were also the kings' parades to Bongeunsa Temple in the reign of King Deokjong, which was about 80 years after King Gwangjong, and it was not until the reign of King Jeongjong that the ritual form was arranged at Yeondeunghoe and Palgwanhoe where the king paid tribute to the statue of King Taejo. The reason why Jinjeon and the statue of King Taejo were built in Bongeunsa Temple so late was that it

^{*}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고려 현종~정종대 왕실의 眞影 중심 조상 숭배 의례의 확립과 그 의미

25

was reached an institutional period of completion after the reign of King Gwangjong and there were several invasions by the Khitan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willingness of King Hyeonjong, who was crowned in an abnormal way, for restoration of the royal authority also played a huge role. In other words, it can be considered that King Hyeonjong tried to show that he succeeded the divine right of kings of King Taejo by establishing a ritual facility for the worship of King Taejo and preparing the ritual procedure for him. However, it was completed by his sons, King Deokjong and King Jeongjong after the death of King Hyeonjong. It can be clearly said that it showe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its role and status as the emperor of the kings with the divine right of kings through the ritual and as an actual pivot of pluralistic society.

Key words: royal portrait, the statue of King Taejo, the divine right of kings, Bongeunsa Jinjeon, King Hyeonjong, King Deokjong, King Jeongjong